

오토데스크사와 서울시 MOU 체결



서울시는 지난 11월 4일,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서 미래성장동력인 디자인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2D, 3D 설계 디자인 솔루션 기업인 오토데스크와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서울시 디자인 서울 총괄 권영걸 본부장, 캐롤 바즈 오토데스크 전(前) CEO 겸 이사회장, 오토데스크 코리아 남기환 사장이 참석해 창의적 디자인 인재 육성을 위한 디자인 교육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와 디자인서울 포럼 공동 개최, 서울 디자인 올림피ック 협력 등 주요 내용으로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서울시와 오토데스크는 일반 청소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디자인 분야 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관, 직업전문학교, 여성직업기관 대상의 디자인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 및 디자인 인력 고용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디자인 서울포럼을 공동 개최해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개발, CO2 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제로 빌딩 정책, 디지털 시티 등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정책을 발굴하고, 서울 디자인 올림피ック(Seoul Design Olympiad)을 후원, '지속가능'을 주제로 한 디자인 작품 전시 및 디자인 경진대회 등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공인된 도시로서 서울시가 진정한 세계적 디자인 도시로 손꼽히기 위해서는 투자가 미흡했던 국내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창의적 디자인 인재 육성은 필수이다"라며, "세계적인 디자인 혁신 기업인 오토데스크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서울'로 한걸음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토데스크 캐롤바즈 전(前) CEO 겸 이사회장은 "디자인이 미래 경쟁력이 된 현 시대에 오토데스크는 혁신성, 미래 지향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솔루션을 골고루 제공함으로써, 서울시가 창의적인 디자인 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2010 세계 디자인 수도'는 물론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는데 아낌 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며, "특히, 디자인 소프트웨어 지원 및 소외 받는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한 디자인 교육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문의 : 오토데스크 코리아

02-3484-3443

K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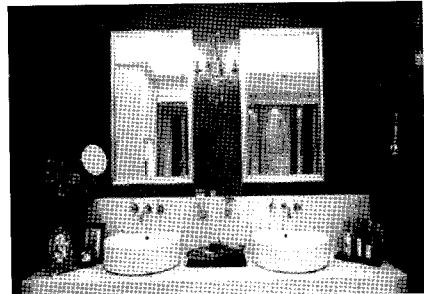
컨셉트별 욕실 인테리어 패키지 '인바이트루' 선보여

KCC(www.kccworld.co.kr)는 디자인 컨셉트별 욕실 인테리어 패키지인 고품격 욕실 자재 통합 브랜드인 '인바이트 루(INVITE LU)'를 선보였다.

인바이트 루는 3가지 컨셉트의 욕실 패키지로서 미니멀한 전통을 이어받은 '네오 클래식', 선의 간결함이 돋보이는 '모던 스타일',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내추럴 스타일'이다.

먼저 '네오 클래식'은 블랙과 화이트 색상을 기본으로 기하학적인 간결함을 고급스러운 마감소재로 다양화하여 아늑하면서도 중후한 가을 느낌을 연출한다.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한 고전적인 요소를 한층 떨어내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모던함이 믹스된 스타일이다.

'내추럴 스타일'은 가을바람에 살랑대는 갈대밭에 온 듯하다.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내추럴 스타일은 흙, 돌, 나무 등의 자연을 소재로 깔끔한 자연미를 강조한 마감재를 사용했다. 부드러운 아이보리와 베이지를



네오 클래식



내추럴 스타일



모던 스타일

기본 컬러로 돌이나 나무 소재의 패턴을 활용해 자연의 소박함을 풍긴다.

선의 간결함이 돋보이는 '모던 스타일'은 올 가을 유행 컬러인 강렬한 와인 색상으로 포인트를 더한 패키지로 모던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신혼부부나 젊은 층에게 적당하다. 페인트가미된 화이트 색상의 타일이 산뜻하면서도 강렬한 레드 색상이 도시적이면서도 가을과 겨울 향기를 더해준다.

'숲으로' 2008 한국소비자웰빙지수 친환경페인트 부문 1위 수상

KCC의 paint '숲으로' 제품이 '2008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 친환경페인트 부문에서 1위 제품으로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최하



신간안내

는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기준은 △건강성 △환경성 △안정성 △총족성 △사회성 등 5개 분야다. 올해는 지난 6~8월 전국 소비자 10만5,400명을 대상으로 154개 제품, 527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KCC가 친환경 페인트의 대표 브랜드인 '숲으로' 제품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최근에 출시한 '숲으로 Wall' 제품은 최첨단 기술인 나노입자를 이용한 친환경페인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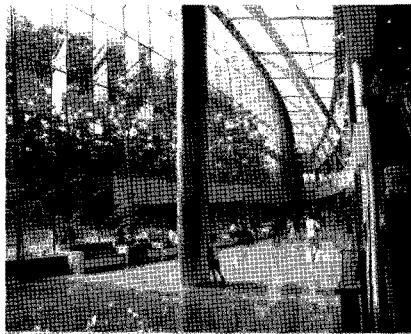
'숲으로 Wall'의 가장 큰 특징은 최첨단 기술인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낙서가 쉽게 지워지는 Easy Cleaning 기능이 탁월하며 새집 증후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를 분해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며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항균기능으로 위생문제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친환경 페인트이다.

'숲으로 Wall'의 우수성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에 과학기술부가 부여하는 신기술인증 'NET(New Excellent Technology)마크' 획득하였으며,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건축자재 인증(HB마크)에서 최우수 등급인 크로바 다섯개를 획득한 친환경 제품이다.

2008년 5월에 'KCCpaint' 제품으로 굿디자인상(GD)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 '2008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 친환경페인트 부문에서 1위 제품을 수상한 KCC 관계자는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 출시 후 대표적인 친환경 도료 브랜드로써 이미지 구축을 확고히 하며 최근 트렌드인 친환경 디자인을 반영하여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최고의 제품이다"라며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건축도 경영이다_삼성암센터를 만든 열정의 건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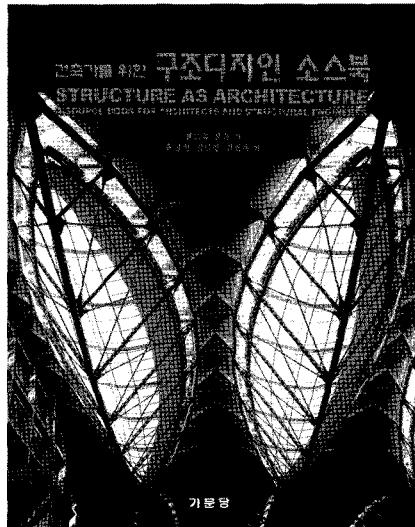


삼성암센터를 만든 열정의 건축 이야기

건축도 경영이다

진 윤구 저 | 272쪽 | 이학사

건축가를 위한 구조디자인 소스북



앤드류 찰슨 저 · 윤성원, 김민경, 김진욱 역 | 256 쪽 | 가문당

이 책은 삼성암센터를 명품 건축으로 지어야겠다는 소신 하나로 지난 8년 동안 삼성암센터 건축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의 전 과정을 총괄한 저자(현 삼성서울병원 삼성암센터 건설본부장인 진윤구 부사장)의 혁신적인 건축 경영 관리 노하우와 그간의 노력을 담고 있다.

저자는 3명의 스태프와 함께 국내 최초로 '원가+fee'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해 건설회사 예상 건축비의 70%였던 예산 금액 범위 내인, 평당 공사비 592만원(VAT 제외 시 538만원)으로 삼성암센터를 준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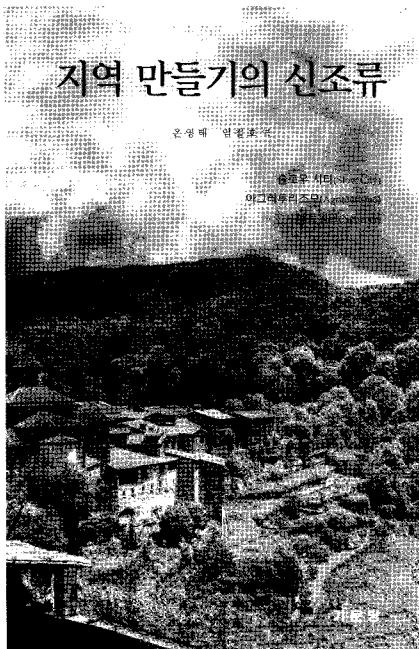
더욱이 실현 불가능하게 보였던 공사비 예산 금액에서 약 230억 원을 추가로 절감하여, 이 절감액으로 자재 고급화를 이루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특히 삼성암센터를 건축할 때 실제로 행한 설계와 시공 관련 공종별 시설별 기술 검토 내용을 공개(CD 부록)함으로써 설계 시공 엔지니어들, 건축 관련자들의 실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이 더욱 눈에 띈다.

이 책은 다른 구조서적과는 달리 디자인과 구조적 측면을 연계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다루며 건축과 구조의 상호협력으로 더 나은 건축물이 탄생함을 시사한다.

건축물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보, 기둥, 골조, 스트럿 그 밖에 다양한 구조 부재들이 갖는 구조적 잠재성을 탐구하여 건축사들이 구조를 단지 건축에 적용된 기술이 아니 건축에 통합된 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건축사들 스스로가 직접 구조를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조가 건축적으로 공헌하는 바는 우선적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이지만, 그 외에도 아름다움과 건축 기능적 풍부함이란 디자인 측면에서 건축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도서이다.

지역만들기의 신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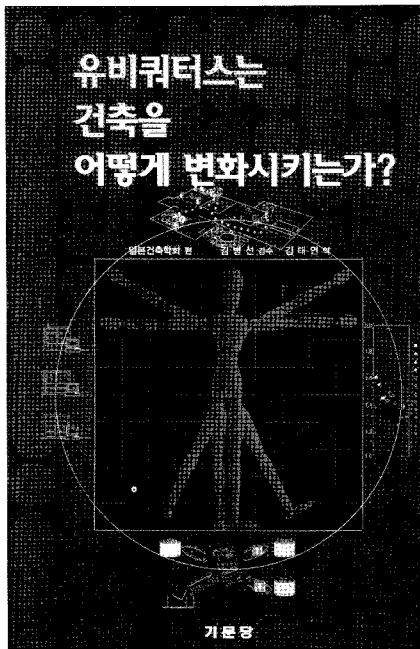


온영태, 염철호 역 | 200 쪽 | 기문당

이 책은 ‘도시계획의 신조류(일본_마을 만들기의 신조류)’의 후속편으로서 전편에서 다루지 않았던 도시와 도시 사이에 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첨단 지역순회 가이드북이라 할 이 책은 지역의 실태를 체감하기 위해 서구 여러 지역을 순회를 통해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 대안적 개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콤팩트 시티, 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만들기의 동향을 전달하고 있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 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 소외되고 낙후되다가 황폐되어 가는 농·어촌 및 산촌, 대도시 주변부 지역의 공간 만들기이다. 낙후지역의 문제해결이 자생적 발전 노력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지방과 대도시 사이의 지역격차 해소에 관한 새로운 처방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살기 좋은 지역,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유비쿼터스는 건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일본건축학회 편 · 김병선 감수 · 김태연 역
| 264 쪽 | 기문당

이 책은 유비쿼터스의 석학인 사카무라 켄 교수가 일본건축학회의 ‘유비쿼터스 건축 도시 특별 연구위원회’에 참가하여 활동하면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한 책이다. 유비쿼터스라는 기술은 건축의 제약을 없애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도시와 건축의 접근 방식을 바꿈으로써 건축을 변화시키고, 건축전문가들은 도시와 건축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단위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새로운 개념의 기술 도입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도울 자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유비쿼터스 기술이 도시나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하고, 진보한 정보기술이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종망라한 조사 연구 내용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시나 건축형태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8-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6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94-3222 · 동리문구건축사회/9927-0503 · 등작구건축사회/618-848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868 · 을지문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8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9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5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봉화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6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90-9·30 · 양주시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보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울진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 · 속초지역건축사회/033)837-662 · 영평장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음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청원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은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1)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1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30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66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6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8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환경/042)841-5725 · 청양지역환경/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완주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8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866-7023 · 다후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51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9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5-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2796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6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8879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3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증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547-4530 · 창원지역건축사회/055)532-9913 · 청원지역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지역건축사회/055)585-88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83-1010